

흡연과 성인병예방 국제심포지엄

담배소비자 건강보호 어떻게 해야 하나?

흡연위생문제의
경위와 흡연현황

담배가 문명사회에 들어온지는 약 500년이 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흡연이 사람의 품위를 높여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주로 상류사회에서 애용되었으며, 민병통치의 영약으로 취급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에 들어 역학조사라는 새로운 학문이 정립되면서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를 몇몇 질환에 대하여 그 발생위험성을 높이는 risk factor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후 지난 40여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는 담배를 끊게 하려는 운동이 끊임없이 추진되었으며 80년대부터는 정부차원의 흡연대책으로 흡연규제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부단한 금연운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흡연율은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으며 담배는 여전히 남녀노소가 가장 즐기는 세계 최대의 기호품으로 남아있다. 더구나 일본의 경우는 1995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되던 흡연율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 남성의 70% 이상이 담배를 즐기고 있으며 한 조사에 의하면 담배를 끊기를 원하는 사람과 계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반반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흡연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 금연운동단체는 담배를 끊으면 대부분의 보건의료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주장하고 있다. 만약 담배가 정말로 그렇게 해로운 것이라면, 더구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당연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애연가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의료인의 역할이 크다. 따라서 이제 의료인들은 금연일변도의 흡연위생연구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자세전환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정책결정을 위해 답을 정해놓고 결과를 유도하는 식의 것이 아니고 금연운동을 주도하는 의료인들을 의

흡연위생연구의 현황을 살펴 보면 실험동물을 이용한 기



이 동 옥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생화학실장)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한 예는 전무한 상태이다. 우리나라가 흡연위생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이와같이 열악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세계에서 흡연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중의 하나로 된 것은 특이할 만한 일이다. 흡연과 관련된 보건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아마도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들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인용 또는 적용했을 것이다. 물론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자료로서의 가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어떤 질병이 발생할 때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상식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적

문헌으로 본 담배와
체질환과의 관련성

지난 수십 년 동안 흡연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깊이 있게 다루어져 왔다. 역학조사에 의하면 흡연이 여러가지 질환의 발생위험성을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질환에 대해서는 흡연자가 무의하게 덜 발생하거나 흡연으로 인해 중세가 개선되는 질환도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지만 흡연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담배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질환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암과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이다. 그러나

〈제5주제〉
담배소비자 건강보호 위해 흡연위생연구의 필요한가?

부단한 금연운동에도 담배는 남녀노소가 가장 즐기는 최대의 기호품
사회일선에서 일하는 약 38%의 애연가들에 대한 배려도 반드시 필요

식할 필요없이 진정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들 논문중 상당수는 미국의 공중위생국(Surgeon Genral)나 질병통제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으로나 문화적, 환경적, 식이적, 종족적으로 전혀 다른 외국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분명히 제한

암의 발생과 진전에는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와 같은 사회적, 심리적인 요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체내에는 발암물질의 대사에 깊이 관여하는 cytochrome P-450이라는 효소가 있다. 이 효소는 수십 종의 동위효소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에 따라서 그 분포가 다르며 그 주에는 폐암을 일으키기 쉬운 type이 있다는 점이다.

(다음 호에 계속)

우리나라 흡연위생과 관련된 연구결과 매우 미약
담배연기, 담배 자체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거의 전무

자의 추세는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이는 아무리 금연운동이 강화되어도 담배를 즐기는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흡연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약 38%, 성인 남성의 70%에 달하는 애연가들이 사회일선에서 일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실을 직시할 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배려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흡연위생연구 현황

대부분의 선진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방법으로 금연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점은 자국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보건정책을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끼연 과학연구재단의 지원하에 매년 150여개의 연구과제가 대학과 병원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참여 연구원의 수도 600여명에 이른다. 정책결정에 그 연구결과들이 참고가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흡연위생과 관련된 연구결과는 매우 미약하다. 자연과학 분야의 근대화가 시작된 1970년 이래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CDC),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 NCI),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n Health, NIH) 등의 보고서를 인용 또는 그대로 번역하여 소개한 것들이다. 더 나아가서 담배연기나 담배자체에 대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매년 외국에서 수 천편씩 쏟아지고 있는 흡연관련 연구논문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흡연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가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흡연대책

근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흡연규제가 가장 심한 국가중의 하나로 되었다. 다시 개정하려는 이 법안은 철저하게 비흡연자 위주로 되어 있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 의해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도

흡연과 성인병예방 국제심포지엄

식생활(신토불이)측면에서 본 흡연자 건강보호

(11면에서 계속)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신토불이는 우리의 식문화(食文化)를 지키는 척도요 건강의 바로 메타이다. 특히 흡연자에게 있어 식생활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담배를 끊을 것인가? 계속 피울 것인가?는 개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나름대로의 즐거운 흡연생활을 위해서는 서구적인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점차 한국인 고유의 식생활 체제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담배해악 논리 또한 과장보다는 한국인 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역학조사와 분석을 통해 올바른 정보로 제시되고 흡연자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흡연생활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지속적인 금연논리의 전개보다는 장·단기적인 영양조사를 통한 신토불이적 식생활 개선 유도를 통해 담배소비자 건강보호 방안을 찾는 것 또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